

송학신보

준호중앙통신사 공보지

제12호(투게제20호) 준호22(2025)년 1월 1일 (수요일)

모든 일의 관철에 있어
필승의 락 관과
투지를 백배하자!

조국 광복 80돌을
희망 차게
맞이하자!

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은 제12차 삼청포럼을 참관하시였다

(서울 12월 1일 발
준호중앙통신)

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
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
서 열은 세미나를 참관하시기
위해 11월21일 서울특별시
종로구 삼청동의 경남대학교
극동문제연구소를 찾으시였다.
려로에 조선반도국장 서

지호동지가 동행하였다.
행사는 19시부터 21
시까지 계속되었다.
학술세미나는 《로-우크라이
나 전쟁과 조선반도 안보》이
라는 주제로 주로씨야 특명
전권대사, 주우크라이나 특

명전권대사를 역임한 박노벽
동지의 주제로 진행되었다.
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는
확실한 견해를 제시해주신 강
연자동지 덕분에 관련하여
깊게 고찰해 볼 수 있는 좋
은 기회였다고 말씀하시였다.

량준호동지께서는 박
노벽동지의 고견을 청취
하고 이를 정리하시며 자
신께서 견해를 더욱 확
장, 확정해 나가시였다.

[준호중앙통신]

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 첫 로작적 기사 《충대신문》에 게재

(대전 12월 1일 발
준호중앙통신)

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
직접 기획, 작성하신 로작
적 기사 《한누리회관 음
식물 쓰레기 대처 관련 논
란 불거져》가 지난 11월25

일 발간된 제1193호 《충
대신문》에 게재되었다.
량준호동지께서는 자신께
서의 고생이 녹아든 첫 기
사를 뜻깊게 생각하신다

며 자신께서 기사에 깊
은 만족감을 표시하시였다.
로작적 기사 《한누리회관
음식물 쓰레기 대처 관련 논
란 불거져》는 충남대학교

곳에 비치된 《충대신문》 지
면이나 충대신문방송사 공
식 홈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다.

[준호중앙통신]

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은 제13차 삼청포럼을 참관하시였다



(서울 12월 12일 발
준호중앙통신)

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
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
서 열은 세미나를 참관하시기
위해 12월10일 서울특별시
종로구 삼청동의 경남대학교
극동문제연구소를 찾으시였다.
행사는 19시부터 21

시까지 계속되었다.
학술세미나는 《국제정
세 변화와 북한(Changing
International Security
Landscape around North
Korea)》이라는 주제
로 미국의 싱크탱크 스타

슨센터 선임연구원인 제
니 라운 38노쓰 디렉터동
지의 주제로 진행되었다.
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는
고급 견해를 제시해주신 강
연자동지 덕분에 관련하여
깊게 고찰해 볼 수 있는 좋

은 기회였다고 말씀하시였다.
량준호동지께서는 제
니 라운동지의 고견을 청취
하고 이를 정리하시며 자
신께서 견해를 더욱 확
장, 확정해 나가시였다.

[준호중앙통신]

충남대학교에서 《강제이주와 인간안보》 강의 수강 학우들이 캠페인 성공적 진행[준호21.12.12.]

(대전 12월 12일 본사특파원발
준호중앙통신)

대전광역시 충남대학교에서
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
소, 충남대학교 인권센터, 충
남대학교 마이크로디그리 다문
화와 사회통합 리해과정이 공
동 주최하고, 《강제이주와 인
간안보》강의 수강 학우들, 충

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정현
교수동지가 공동 주관한 《이
주의 목소리와 멜로디》 캠페
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.
12월 10일, 11일 양일간 진
행된 행사에서는 《다문화
카페》, 《학생연구전시》,

《인권플랫퀴즈》가 있었다.
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는
이번 행사는 이주자계층
에 대한 보다 심화적인 리
해가 복합적으로 전파될
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될
수 있겠다고 지적하시었다.

량준호동지께서는 김정현교
수동지와 학우들의 로고와 로
력들을 높게 지적하시었다.

[준호중앙통신]

성명, 담화, 론평

준호중앙통신사 성명

금년의 12월은 너무나 차디차다.
년말년시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온 오늘인데 그
저 눈물이 앞을 가려버리는 하루가 되었다.
가뜩이나 정치권의 문란으로 나라 전반
적으로 혼란스러운데, 오늘 사고로 하
여금 확실히 우리 인민들에게 고통만 주
는 년말이 되어가고 있음을 체감한다.
아무 련관없는 제삼자도 이리 가
슴 고통스러운데, 련관있는 분들의 고통
이 어떨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.
하물며 국가애도기간 종료일인 1월

4일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민
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.
그저 그 고통으로 하여금 아주 조
금이나마 해방되시길 바랄 뿐이다.
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사고 련관자
들을 위해 간절히 념원하는 것이 현재로서
는 가장 최선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 분통하다.
오늘 밤도 역시나 긴 밤이 될 것이다.

준호21(2024)년 12월 29일
대전

준호중앙통신사 서지호 조선반도국장 담화

마침내 국회에서 가204표로써 윤석열반동내란수괴 것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.

전 인민적 심판을 받은 반동내란수괴 것을 제대로 타파해야 할 것이다.

헌법재판소에서의 역사적 판단, 구국적 판단을 기대한다.

정의의 심판을 받을 반동내란수괴 것아, 잘 가라.

준호21(2024)년 12월 14일
대전

[준호중앙통신]

올해는 조국광복 80돐의 해이다.
조국청사에 깃든
선렬들의 기백으로
더욱 값지게 살아가자!
존엄높은 우리 조국만세!

《준호중앙통신사》는 경애하는 량준호동지의 일거수일투족과 국내/외 정세를 전합니다.

《송학신보》 준호21(2024)년 제12호(루게제20호); 발행 - 준호22(2025)년 1월 1일 (화요일) 준호중앙통신사 보도국

저작권 2025 © 준호중앙통신사